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① 매년 음력 2월경 요나고를 출발
- ② 구모즈(雲津)에 들러 사람이 승선
- ③ 본토를 떠난 배는 우선 오키에 들러 도항 준비를 하고 사람도 여기서 합류했다.
- ④ 도해 이정표나 계류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강치나 전복 어업도 했다. 1661년부터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매년 교대로 도항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 ⑤ 울릉도에는 수개월 체류했다. 1666년에는 2척으로 울릉도로 향해, 짐을 싣으려고 현지에서 배를 조달해 3척으로 돌아갔으나 1척만 남은 적도 있었다.

에도 시대에는 회선업에 벤자이센(弁財船)이라는 배가 이용되었다. 2척의 배에 50명 정도가 타고 있던 것, 훗날 1척이 되어 승선 인원도 줄어든 것, 200석적(약 58m³)의 크기였던 것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선원 구성 예(1666년의 경우)

- 우와노리(上乘、총지휘) 1명
- 선두 1명
- 강치 어부 2명
- 전복 채취자 3명
- 대장장이·배 목수·통 목수·조타수 각 1명
- 선원 10명

※벤자이센의 모습

그림: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 경로('다케시마 고(竹島考)')-(→No.3) 등을 바탕으로 작성)